

일본의 VTR업계 해외생산 동향

1. 개요

일본의 VTR 해외생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업계의 VTR해외생산은 1983년경까지는 각사 모두 합쳐 불과 30만대 정도였으나, '85년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円高를 배경으로 '88년에는 500만대를 돌파하였다. 그후도 해외생산은 확대일로를 걸어, 특히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日系기업의 VTR생산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의 생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거치형 VTR의 세계수요는 대략 4천만대로 금후도 확실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日系기업은 엔고회피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의 수요에는 현지 생산으로」라는 사고로 세계화의 대응을 전개하고 있어, R&D의 현지 투자와 함께, 착실히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VTR 생산의 空洞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고부가가치 기종을 일본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형 및 HiFi 기종의 해외생산 현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치형 VTR은 금후 동남아시아지역의 Needs와 중국에서의 시장확대 등으로 보급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의 합작 기술계휴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생산한 VTR의 일본시장에로의 수출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의 일본으로의 VTR 수입대수는 18만 7,000대로, 전년대비 153.8%라는 커다란 신장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말레이시아로부터는 22만 5,000대가 수입되어 전년대비 643.1%의

급증을 나타냈다. 이것은 日系기업의 현지생산 VTR이 일본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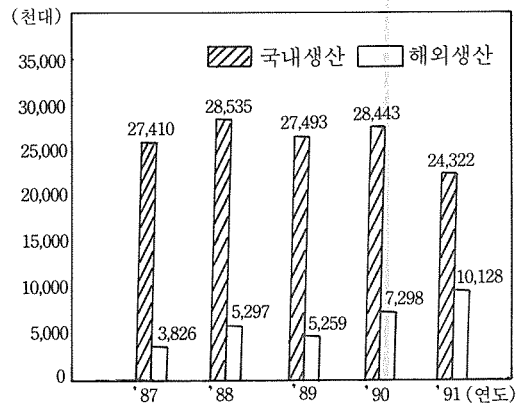
2. 업체별 생산동향

가. 마쯔시다 전기

마쯔시다전기의 해외생산은 금년에 260만대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 20%증가한 것으로 동남아 지역의 북미시장수출 거점으로서의 확대 외에 유럽에서도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에서는 3개국 4개공장에서 생산을 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격감한 작년에는 20%이상 생산이 줄었으나, 금년에는 더이상 생산이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마쯔시다 전기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VTR 국내생산·해외 생산



※ 자료 : 국내생산=통산성생산 동태통계를 주로하여, 일부가공
해외생산=(社)일본전자기계공업회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의 3개공장 모두 순조로이 증산을 계속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電子工業은 금년에 80만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 松下 오디오·비디오 공장에서는 중동의 수요증가가 반영되어 20%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고, 대만도 대만내 수요의 증가로 50%증산을 계획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미에서는 TV일체형 생산을 하고 있는 데, 북미시장에서도 同 TV일체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60만대를 증산할 예정이다.

한편,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의 VTR 생산은 계획대로 大連에서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 도시바

도시바는, 싱가포르에서 톰슨과의 합작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 생산면에서 '92년에는 200만대였으나, 금년에는 23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同社は 유럽시장용으로 독일에서 자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히다치는 말레이시아를 해외거점으로 육성시키려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2년 생산보다 10만대가 늘어난 90만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일본시장에도 말레이시아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다. 산요전기

산요전기는 유럽시장용 독일에서, 북미시장용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해당국가 내 수요의 VTR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산요공업 독일」에서의 생산은 유럽시장의 수요침체를 반영해 작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작년을 상회하는 생산계획을 세우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산요 자야 전자부품」은 북미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서 설립되어 작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3배정도 증산할 계획이다. 이는 북미시장의 수요회복에 의한 것으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의 생산거점이 되고 있다.

그외로는,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 안정된 생산을 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금년 15만대 정도의 생산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생산환경·시장동향에 미정인 부분도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同社は 이야기 하고 있다.

라. 미쓰비시 전기

미쓰비시전기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의 25만대에서 금년에는 일거에 44만대를 생산하여 북미, 동남아시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 소니

소니는 프랑스의 알사스에서 8mm VTR, VHS의 兩타입을 생산중이며, 말레이사에서도 8mm VTR을 생산하고 있다.

바. 일본 빅터

일본 빅터는 필립스와 합작하여 말레이시아에서 VTR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91년 70만대에서 '92년에는 150만대, '93년에도 150만대를 계획하고 있다.